

# 눈

김수영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문학예술』

김수영(1921~1968)

시인. 모더니즘 시에서 출발하여 현실 비판 의식과 저항 정신을 드러낸 참여시를 썼다. 작품으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풀」 등이 있다.

## 역량을 기르는 학습 활동

### ■ 이해 활동

1. 이 작품의 내용을 이해해 보자.

(1) 이 작품의 화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해 보자.

(2) 다음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해 보자.

시어	함축적 의미
눈	
기침	
가래	불순물, 부정적인 것 등을 의미함.

2. 이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알아보자.

(1) 서로 유사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연을 찾고 반복되는 시구를 적어 보자.

1연	대 응	( )연	( )연	대 응	( )연
반복되는 시구			반복되는 시구		
눈은 살아 있다					

(2) 반복되는 시구의 문장 종결형을 살펴보고 그 효과를 파악해 보자.

반복되는 시구	문장 종결형	반복의 효과
눈은 살아 있다	평서형	